

## 35 유물보존처리작업자에서 발생한 유방의 상피내암종

성별	여성	나이	29세	직종	유물보존직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### 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□박물관에서 유물의 보존처리업무를 수행하였다. 이후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□사업장 유물관리부서에서 출토된 유물의 이물질 제거와 보존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, 2013년 4월에 속옷에 혈흔이 묻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유관상피내암을 진단받았다.

### 2 작업환경

○○○은 2007년 □박물관에서 약 3년간 유물의 보존처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, 2010년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유물관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약 3년 10개월간 방사선 촬영, 녹제거, 접합 및 복원, 부식억제제 투입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. 방사선 발생장치는 납으로 차폐되어 있었고, 방사선 발생 전류량은 낮았다.

### 3 해부학적 분류

- 기타암

### 4 유해인자

- 물리적 요인(전리방사선)

### 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13년 4월경 속옷에 혈흔이 묻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며, 2013년 5월 유방의 유관상피내암을 진단받고, 일부 광범위 절제 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.

근로자 ○○○은 6년 10개월 동안 유물보존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사선에 노출되었으나, 방사선 발생장치가 납으로 차폐되어 있고, 방사선 발생전류량이 낮아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. 따라서 근로자의 유관상피내암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. 끝.